시작하자! 10년 투자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실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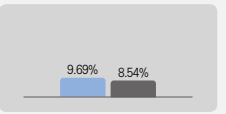
☆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기업의 내재 가치에만 주목하여 장기 투자합니다.

☆ 꾸준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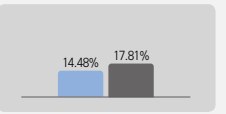
☆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지향합니다(Low Risk Middle Return).

최초 설정일 | 2013.12.24	운용 기간 | 2017.03.24~2017.0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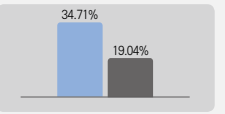
최근 3개월 수익률
9.69%
(비교지수 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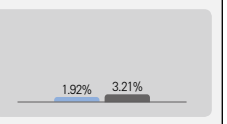
최근 1년 수익률
14.48%
(비교지수 1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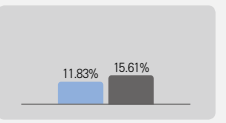
최근 3년 수익률
34.71%
(비교지수 19.04%)



2016년 수익률
1.92%
(비교지수 3.21%)



연초 이후 수익률
11.83%
(비교지수 15.61%)



총자산
219,675 백만 원
(전분기 대비 2.22% 감소)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의 위험 등급

1 이 펀드는 **최근 결산일(2016년 12월 23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한 연환산 표준편차가 8.74%**로 산출되어 6단계 위험 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를 통한 실세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면서 보통 수준의 수익률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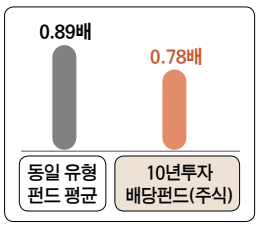
2 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는 장기 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 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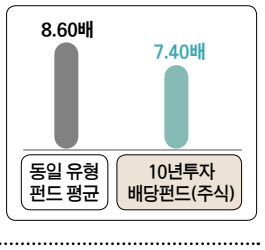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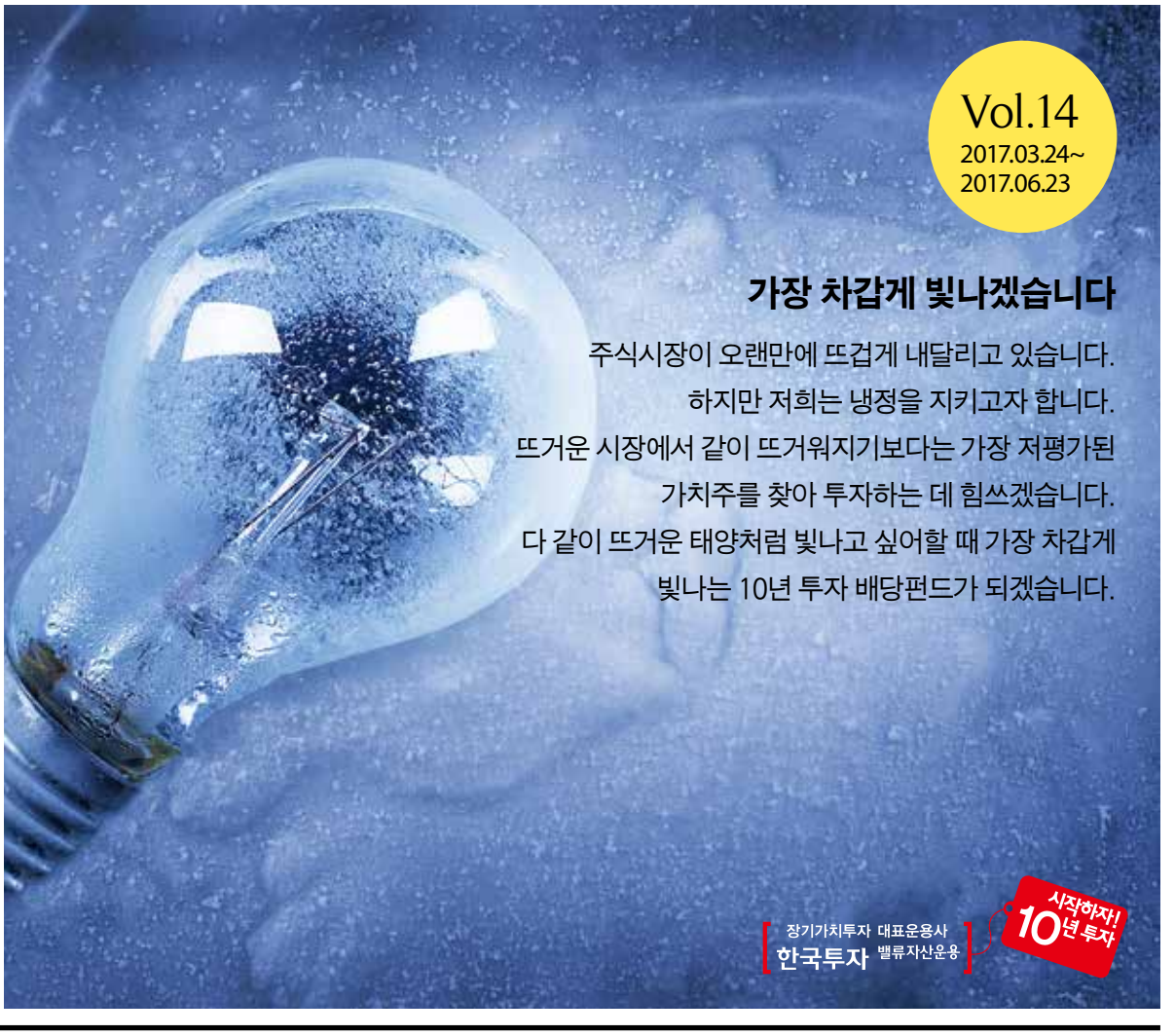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을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 = 주가/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 = 주가/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5~2017.04)
※ **동일유형펀드** 액티브주식배당 공모펀드(고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며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이승혁 자산운용3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저평가되고 배당수익률 높은 종목 위주로 장기 수익 높여갈 것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운용 기간(2017.03.24~2017.06.23) 동안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는 9.69%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비교지수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전형적 강세장 속 지주회사와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직전 분기 주식시장 상승세가 삼성전자와 대형 경기 민감주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보였던 반면 이번 분기에는 새 정부 출범 후 내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 확대되는 전형적인 강세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IT 업종과 금융 업종뿐 아니라 유통 등 내수 관련 업종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에는 불리한 요인과 유리한 요인이 공존하는 분기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우려가 구체화되면서 자동차 수출이 부진했던 점,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점 등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상장사 지배 구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산되면서 지주사와 배당 관련 종목이 부각된 점은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가 보유한 저평가된 지주회사와 배당수익률이 높은 우선주가 상승하면서 이번 분기 수익률은 비교지수 수익률을 넘어서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외되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 높은 기업 중심으로 투자

2017년 상반기 KOSP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상승한 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IT 업종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기준에서 볼 때 이들 기업은 업황이 최고점에 이른 대형주이고, 앞으로 경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는 시장의 쏠림에 쉽게 편승하기보다는 소외된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중·장기적인 복리 수익을 추구합니다.

>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는 지금 인기 있는 산업과 기업을 좇기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투자자들에게 잊힌 기업에 대한 Bottom-up 리서치를 통하여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거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KOSPI는 2,400포인트를 앞두고 있어 업종 대부분 연중 최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지금껏 상승한 주가에 걸맞은 실적 성장을 달성한 산업과 기업에 주가 상승이 더욱 편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고, 지금까지 눈에 잘 띄지 않던 소외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는 지금 인기 있는 산업과 기업을 좇기보다는 시장에서 소외되고 투자자들에게 잊힌 기업에 대한 Bottom-up 리서치를 통하여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거나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현재 보유한 종목 하나하나를 처음 편입하는 마음으로 점검하여 수익률 누수를 막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나가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산운용3본부장 **이승혁**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신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자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주식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 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운용하여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모자형 펀드**입니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통합·운용하는 모펀드와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 지분을 취득하는 자펀드로 이루어집니다.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의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기타	펀드온라인코리아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B4397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AN086
클래스 A	AN087
클래스 A-E	AN088
클래스 C	AN089
클래스 C2	AN090
클래스 C3	AN091
클래스 C4	AN092
클래스 C-E	AN093
클래스 C-F	AN094
클래스 C-W	AN096
클래스 S	AP753
클래스 C-P	AX934
클래스 C-Pe	BD431
클래스 C-G	BP125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신한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타스

- 이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한국밸류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인 '신한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이 펀드는 모자형 구조의 펀드로 자산운용보고서의 자산 구성 현황, 보유 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한국밸류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가 투자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표로 보는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재산 현황

(단위: 백만 원,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3.23)	금분기 말(2017.06.23)	증감률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자산 총액	224,662	219,675	-2.22
	부채 총액	1,034	881	-14.71
	순자산 총액	223,628	218,793	-2.16
	기준 가격	1,039.32	1,140.05	9.69
종류(class)별 기준 가격 현황				
클래스 A	기준 가격	1,035.72	1,133.59	9.45
클래스 A-E	기준 가격	1,037.30	1,137.32	9.64
클래스 C	기준 가격	1,028.61	1,124.01	9.27
클래스 C2	기준 가격	1,030.36	1,126.88	9.37
클래스 C3	기준 가격	1,031.69	1,127.88	9.32
클래스 C4	기준 가격	1,036.22	1,133.14	9.35
클래스 C-E	기준 가격	1,036.85	1,135.78	9.54
클래스 C-F	기준 가격	1,037.77	1,136.66	9.53
클래스 C-W	기준 가격	1,037.93	1,137.03	9.55
클래스 S	기준 가격	1,037.12	1,135.51	9.49
클래스 C-P	기준 가격	1,032.07	1,127.90	9.29
클래스 C-Pe	기준 가격	1,027.16	1,123.81	9.41
클래스 C-G	기준 가격	-	1,060.00	-

- **기준 가격** 투자자가 펀드를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 포함) 수령 시에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펀드 순자산 총액÷수익증권 총좌수)×1000

표로 보는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

기간 수익률

(단위: %, %p)

펀드명	최근 3개월 2017.03.24~2017.06.23	최근 6개월 2016.12.24~2017.06.23	최근 9개월 2016.09.24~2017.06.23	최근 1년 2016.06.24~2017.06.23	최근 2년 2015.06.24~2017.06.23	최근 3년 2014.06.24~2017.06.23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9.69	14.01	12.38	14.48	10.79	34.71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5)	(-1.12)	(-1.89)	(-3.33)	(-2.48)	(15.67)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19.04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9.45	13.43	11.46	13.17	8.23	30.1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91)	(-1.70)	(-2.81)	(-4.64)	(-5.04)	(11.08)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19.04
클래스 A-E	9.64	13.73	11.86	13.70	9.19	31.80
(비교지수 대비 성과)	(1.10)	(-1.40)	(-2.41)	(-4.11)	(-4.08)	(12.76)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19.04
클래스 C	9.27	13.10	10.98	12.54	7.04	27.90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3)	(-2.03)	(-3.29)	(-5.27)	(-6.23)	(8.86)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19.04
클래스 C2	9.37	13.22	11.14	12.74	7.28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83)	(-1.91)	(-3.13)	(-5.07)	(-5.99)	-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
클래스 C3	9.32	13.22	11.20	12.85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8)	(-1.91)	(-3.07)	(-4.96)	-	-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	-
클래스 C4	9.35	-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81)	-	-	-	-	-
비교지수	8.54	-	-	-	-	-
클래스 C-E	9.54	13.58	11.66	13.45	8.79	31.15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0)	(-1.55)	(-2.61)	(-4.36)	(-4.48)	(12.11)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19.04
클래스 C-F	9.53	13.67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99)	(-1.46)	-	-	-	-
비교지수	8.54	15.13	-	-	-	-
클래스 C-W	9.55	13.70	11.92	13.84	9.74	-
(비교지수 대비 성과)	(1.01)	(-1.43)	(-2.35)	(-3.97)	(-3.53)	-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
클래스 S	9.49	13.55	11.68	13.50	9.00	31.6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95)	(-1.58)	(-2.59)	(-4.31)	(-4.27)	(12.60)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19.04
클래스 C-P	9.29	13.17	11.13	12.76	7.46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75)	(-1.96)	(-3.14)	(-5.05)	(-5.81)	-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13.27	-
클래스 C-Pe	9.41	13.42	11.52	13.33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0.87)	(-1.71)	(-2.75)	(-4.48)	-	-
비교지수	8.54	15.13	14.27	17.81	-	-
클래스 C-G	-	-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	-	-	-	-	-
비교지수	-	-	-	-	-	-

- **비교지수**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는 지수 변화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볼 수 있도록 비교지수([KOSPI×90%]+[CD금리×10%])를 사용했습니다.
-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투자 실적은 과거의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 C-F 미운용 기간: 2016.01.06~2016.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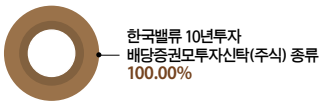
손익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전분기	8,882	34	-1	8,916
금분기	20,351	58	-1	20,408

펀드 구성

자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 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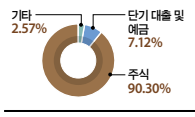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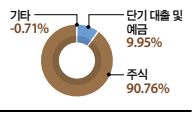
- 위 도표 및 그림은 현재 투자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펀드만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펀드 자산 현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각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산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주식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	199,384	21,858	-1,567	219,675
	(90.76)	(9.95)	(-0.71)	(100.00)

- ( ) 안의 숫자는 구성 비율로, 총자산 중에서 각각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 위의 자산 구성 현황은 투자자가 가입한 자펀드의 실제 자산 구성 내역이 아니고,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 구성 내역과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전분기 말(2017.03.23)	금분기 말(2017.06.23)
	

Comment!

최근 3개월 9.69%로 비교지수보다 높은 성과 보여

직전 분기까지 계속된 IT 업종과 경기 민감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은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임이 큰 경기 민감 업종에 투자하기보다는 높은 배당수익률과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 복리 수익을 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분기에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확대 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지주회사와 배당 관련 주식이 상승세를 보여 수익률 개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주요 자산 보유 현황

1. 주식

(단위: 주, 백만 원, %)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SK우	59,649	10,111	4.60	10.60
SK	30,322	8,414	3.83	-
삼성화재우	37,778	7,367	3.35	1.19
메리츠금융지주	516,959	7,315	3.32	-
LG화학우	28,830	5,579	2.53	-
현대로보틱스	13,918	5,226	2.37	-
기업은행	372,807	5,126	2.33	-
기아차	129,240	5,021	2.28	-
영풍	4,424	4,729	2.15	-
CJ우	49,708	4,548	2.07	2.21
삼영무역	233,626	4,497	2.04	1.43
빅솔론	328,070	4,462	2.03	3.24
동아에스텍	596,491	4,444	2.02	3.90
풍산홀딩스	82,515	4,299	1.95	1.06
아세아	33,801	3,820	1.73	1.55
경동제약	183,918	3,614	1.64	1.39

종목명	보유 수량	평가액	비중	비고
농우바이오	208,772	3,403	1.54	1.47
케이아이엔엑스	218,713	3,182	1.44	4.51
한전산업	636,257	2,955	1.34	1.96
화천기공	51,696	2,905	1.32	2.36
새론오토모티브	366,842	2,847	1.29	1.92
LG하우시스우	41,754	2,676	1.21	4.07
MDS테크	128,246	2,674	1.21	1.46
에스텍	198,830	2,545	1.15	1.83
윈스	198,830	2,456	1.11	1.74
엠케이트렌드	181,930	2,447	1.11	1.42
삼정펄프	48,713	2,287	1.04	1.96
노루홀딩스	149,123	2,222	1.01	1.14
NI스틸	497,076	2,150	0.97	1.76
한국제지	61,637	1,852	0.84	1.24
경동도시가스	33,243	1,675	0.76	1.06
SJM홀딩스	228,655	1,207	0.54	1.54

2. 단기 대출 및 예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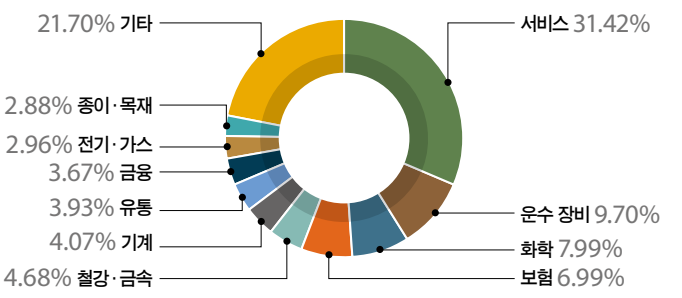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 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비중
예금	신한은행	-	21,858	0.92	-	9.95

- **비중** (평가액÷총자산)×100 **비고** (보유주수÷총발행주수)×100
- 펀드 자산(주식, 채권, 기타 자산 포함) 총액에서 상위 10개 종목, 자산 총액의 5% 초과 보유 종목 및 발행 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보유 내역을 보여줍니다.
- 보다 상세한 투자 대상 자산 내역은 금융투자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의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협회 전자 공시 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 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투자 비중

- 이 그래프는 기준일 현재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의 업종별 비중을 나타냅니다.



Comment!

서비스업·운수 장비업 비중 늘고, 보험업·화학업 비중 줄어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의 이번 분기 업종별 투자 비중을 직전 분기와 비교해보면 서비스업과 운수 장비업 비중은 늘고, 보험업과 화학업 비중은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은 27.33%에서 31.42%로, 운수 장비업은 8.65%에서 9.70%로 비중이 늘었습니다. 한편 보험업은 9.82%에서 6.99%로, 화학업은 8.54%에서 7.99%로 비중이 각각 줄었습니다. 투자 비중 상위 종목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대로보틱스와 기업은행, 기아차, 영풍, CJ우선주 등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

펀드명	구분		전분기 말(2017.03.23) 금액	전분기 말(2017.03.23) 비율	금분기 말(2017.06.23) 금액	금분기 말(2017.06.23) 비율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자산운용회사		308.27	0.13	300.32	0.14
	판매회사	클래스 A	220.48	0.17	208.26	0.18
		클래스 A-E	5.68	0.09	5.46	0.09
		클래스 C	8.21	0.32	7.18	0.33
		클래스 C2	49.69	0.27	25.65	0.28
		클래스 C3	46.65	0.22	60.32	0.23
		클래스 C4	0.50	0.17	3.61	0.18
		클래스 C-E	16.87	0.12	16.42	0.13
		클래스 C-F	0.04	0.01	0.04	0.01
		클래스 C-W	-	-	-	-
		클래스 S	3.17	0.09	3.10	0.09
		클래스 C-P	82.30	0.23	89.00	0.24
		클래스 C-Pe	0.03	0.12	0.06	0.12
		클래스 C-G	-	-	0.00	0.06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신탁업자)		17.13	0.01	16.68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10.28	0.00	10.01	0.01
	보수 합계		769.31	1.95	746.11	2.06
	기타 비용		2.38	0.00	2.33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 매매 중개 수수료	15.61	0.01	24.50	0.01
		조사 분석 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36.41	0.02	57.18	0.03
		합계	52.02	0.02	81.68	0.04
	증권거래세		103.33	0.05	152.95	0.07

- **비율**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 평잔) 대비 비율
- **기타 비용**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 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연 환산, %)

펀드명	구분	총보수비용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합계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전분기	0.00	0.09	0.10
	금분기	0.00	0.15	0.15
한국밸류 10년투자 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모)	전분기	0.00	-	-
	금분기	0.00	-	0.00
종류(class)별 현황				
클래스 A	전분기	1.29	-	1.29
	금분기	1.29	-	1.29
클래스 A-E	전분기	0.94	-	0.94
	금분기	0.94	-	0.94
클래스 C	전분기	1.89	-	1.89
	금분기	1.89	-	1.89
클래스 C2	전분기	1.69	-	1.69
	금분기	1.69	-	1.69
클래스 C3	전분기	1.49	-	1.49
	금분기	1.49	-	1.49
클래스 C4	전분기	1.29	-	1.29
	금분기	1.29	-	1.29
클래스 C-E	전분기	1.09	-	1.09
	금분기	1.09	-	1.09
클래스 C-F	전분기	0.62	-	0.62
	금분기	0.62	-	0.62
클래스 C-W	전분기	0.59	-	0.59
	금분기	0.59	-	0.59
클래스 S	전분기	0.94	-	0.94
	금분기	0.94	-	0.94
클래스 C-P	전분기	1.54	-	1.54
	금분기	1.54	-	1.54
클래스 C-Pe	전분기	1.05	-	1.05
	금분기	1.06	-	1.06
클래스 C-G	전분기	-	-	-
	금분기	1.16	-	1.16

- **총보수비용 비율(Total Expense Ratio)** 운용 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 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 수수료 비율** 매매 중개 수수료를 순자산 연평 잔액(보수 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해당 운용 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 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안분하여 합산한 수치입니다.

매매 주식 규모 및 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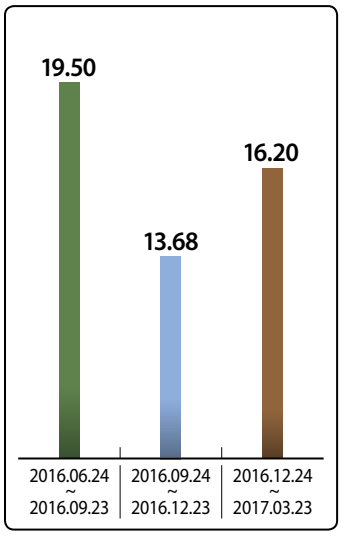
(단위: 주, 백만 원, %)

매수 수량	매수 금액	매도 수량	매도 금액	매매회전율 해당 기간	매매회전율 연 환산
936,934	27,219	1,917,589	50,994	26.09	103.49

- **매매회전율** 주식 매매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운용 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 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 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단위: %)



Comment!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 다소 상승

10년투자 배당펀드(주식)의 이번 분기 매매회전율은 26.09%로 직전 분기 16.20%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주식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매수 금액과 매도 금액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매도 금액의 증가 폭이 컸습니다. 이번 분기 주가 상승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진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매매회전율이 다소 상승했습니다.

친절한 밸류 탐정의 펀드, 잘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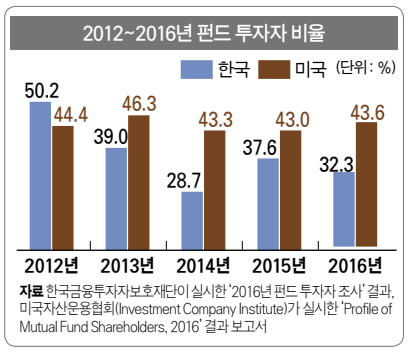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어떻게 다를까?

투자 목적과 기대수익률, 펀드 정보에 대한 관심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비교', '한국과 미국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공시 자료에 대한 의견'

1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비율 변화 추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응답자는 한국의 경우 32.3%, 미국의 경우 43.6%로 나타나 미국이 약 10%p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에는 펀드 투자 비율이 50%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비해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가계의 약 45%가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실시한 '2016년 펀드 투자자 조사' 결과,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실시한 'Profile of Mutual Fund Shareholders, 2016' 결과 보고서

2 펀드 가입 유형과 투자자 연령 차이

한국은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과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비율보다는 일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한 비율이 퇴직연금 이외 개인적으로 투자한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펀드 투자자 연령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대체로 연령 구간별로 투자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펀드 투자자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펀드 가입 유형(중복 응답)

한국		미국	
일반 펀드	96%	퇴직연금(DC형)	81%
특정 펀드	71%	퇴직연금 외	63%

3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1순위는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 모두 '은퇴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31%, 미국은 74%로 한국 투자자보다 미국 투자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주로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해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중요시하는 펀드 정보

한국 투자자는 펀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로 50.1%가 '해당 펀드의 성과(수익률)'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펀드 정보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성과(수익률)가 22.4%, 펀드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가 16.2%였습니다. 한국 펀드 투자자들은 운용보고서 내용 중 관심 있는 항목 역시 수익률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운용 경과와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은 12.9%,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은 9.5%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펀드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 1순위는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그림으로 표현된 연간 총수익률, 투자 목적 순이었습니다.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실시한 'Investor View o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roposed Summary Prospectus' 결과 보고서(2008)]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자! 뉴스 스크랩북

뉴스에서 많이 본 말,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지난해 말 제정된 후 새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 공약으로 제시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스튜어드십 코드란? ▶ 기관투자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위탁자의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처음 제정되었고,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화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화는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 삼성증권,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 증시 재평가의 이정표'

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 ▶ 그렇다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한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밝힌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❷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❸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❹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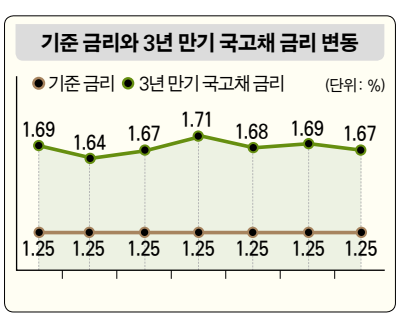
❺ 기관투자자는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한 지침·절차·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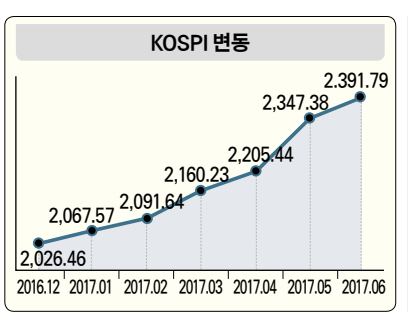
❻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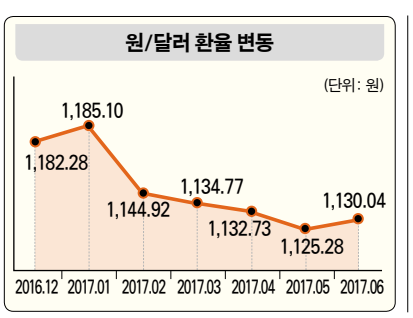
❼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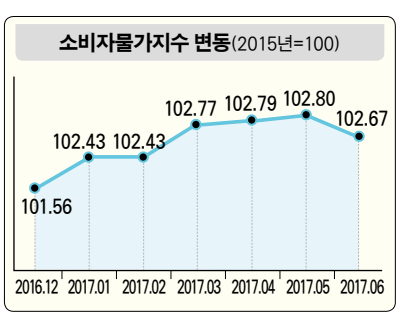
3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식시장 ▶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일본, 홍콩, 대만 등 1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식시장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 배당 확대 등 변화를 이끌어내어 고질적인 주식시장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6.12~2017.06)









• **자료** 한국은행(KOSPI-종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